월암 스님이 전하는 '참선'의 핵심



좌선요결
월암 스님 지음
담앤북스
2만5000원

조사선 정맥 짚어 좌선 본질 밝혀
역대 조사들 좌선 수증 역사 정리
2전제 1토대 5본제 간화선 체계화

배희정 기자 hbpress@hyunbul.com

가부좌를 틀고 생사를 해탈하고자 발심하는 좌선(坐禪)은 수행자의 거룩한 불사다. 그러나 몸은 고요하게 앉아 있을지라도 마음은 온갖 분별로 시끄럽게 헤매다 깨달음이라는 본질이 왜곡되거나, 단순히 몸을 결박하는 데 그치는 안타까운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좌선 수행의 본질과 핵심을 정리한 수행 안내서가 나왔다. 전국선원수좌회 의장을 지내고 현재 문경 한산사 용성선원과 경주 중흥사 불이선원의 선원장을 맡고 있는 월암 스님이 집대성한 〈좌선요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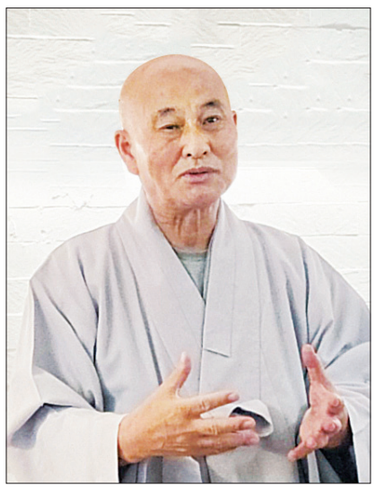
이 책은 석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달마 대사, 육조 혜능을 거쳐 임제·조동 등 오가칠종(五家七宗) 선사들과 한국의 선지식들로 이어진 조사선(祖師禪)의 정맥을 되짚으며 좌선의 본질을 밝힌다. 번뇌를 다스리는 다섯 가지 관법인 오정심관(五停心觀)으로부터 살불살조(殺佛殺祖)의 조사선을 거쳐 묵조선(默照禪)과 간화선(看話禪)에 이르기까지 역대 조사들의 좌선과 깨달음에 관한 심지법문(心地法門)을 한데 모았다.

책은 '좌선요의'와 '심지법문', '간화정종' 등 3장으로 나누어 선의 역사와 체계를 깊이 있게 조명한다.

부처님의 팔만사천법문과 역대 조사들이 전한 좌선의 요체를 정리한 '좌선요의(坐禪了義)'에서는 좌선의 의의는 물론 여래청정선과 돈오점수, 오가종과 조사선, 묵조선과 간화선에 이르기까지 좌선의 역사를 살핀다.

역대 조사들의 좌선 수증(修證) 요결을 갈무리한 '심지법문'에서는 '회광반조(廻光返照)', '체원진도(體寃進道)', '수일불이(守一不移)' 등 수좌들이 뼛속 깊이 새겨야 할 역대 조사의 핵심 가르침을 정리해 선 수행의 지침을 제시한다.

'간화정종(看話正宗)'에서는 간화선 수행의 특징과 현대적 효용, 수증 방편을 상세히 조명한다. 특히 간화선 수행의 전반을 '2전제 1토대 5본제'라는 구조로 정립해 눈길을 끈다. 정견(正見)과 발심(發心)이란 전제 위에 일념수행(一念修行)을 토대로 삼고, 예경선(禮敬禪)·안반선(安般禪)·염불선(念佛禪)·화두선(話頭禪)·휴휴선(休休禪)으로 이어지는 5단계 본제를 통해 수행의 길잡이를 제시한다.



깨달음에 이르는 좌선 수행의 핵심 가르침을 담은 〈좌선요결〉을 출간한 월암 스님.
현대불교 자료사진

주제별로 다룬 각 장 말미에는 스님이 직접 지은 칠언절구의 게송으로 내용을 강조해 눈길을 끈다.

월암 스님에 따르면 '선'이란 마음을 알아 참된 성품을 보고, 나고 죽음이 본래 없음을 단숨에 꿰뚫는 일이다. 따라서 좌선은 고목처럼 형상만 굳게 앉아 있는 정적인 상태에 머물지 않는다. 스님은 이를 "마음밭[心田]에 쉼 없이 일어나는 분별과 망상을 쉬고 또 쉬어 마침내 텅 빈 자리에 이르는 역동하는 멈춤"이라고 정의한다.

일체의 분별이 끊어져 생각이 더는 일어나지 않을 때, 마음의 거울은 무명의 티끌을 벗고 삼라만상을 있는 그대로 비추게 된다는 설명이다.

나아가 스님은 좌선의 완성이 고요한 선방에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행주좌와(行住坐臥) 어묵동정(語默動靜)의 매 순간 화두가 살아 있는 역동성에 간화선의 묘미가 있으며,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소란한 일에 휘둘리지 않고 화두를 놓치지 않을 때 비로소 진정한 증득이 시작된다는 것이다.

"참된 선은 경직된 교조의 틀에 갇히지 않는다"는 스님의 지적처럼, 이 책이 지향하는 바는 깊은 산중에 은거하는 고립이 아니라 일상과 수행이 둘이 아닌 '불이(不二)'의 실천이다.

독자들이 일상의 매 순간 화두를 참구하되 무엇인가를 얻으려는 마음조차 내려놓고 참된 사람[無位眞人]이 되어, 온 세상을 자비로 물들이는 향기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염원하는 스님의 경책은 좌선을 통해 스스로를 반조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명쾌한 길잡이가 되어준다.

티베트 불교 역사·사상 한눈에



티벳 불교에 대한 짧고 깊은 안내
매튜 캡스타인 지음
한재희 옮김
운주사
1만5000원

고승 가르침 받은 미국 불교학자
티베트 불교 기원부터 전파 망라

학계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티베트 불교의 전체상을 충실하게 담아낸 입문서가 국내에 번역돼 나왔다. 프랑스 파리 고등연구원 종교학부 매튜 캡스타인 명예교수가 쓴 〈티벳 불교에 대한 짧고 깊은 안내〉다. 이 책은 2014년 간행된 옥스퍼드 출판사 기획 시리즈의 번역서로, 티베트 불교의 역사와 전통, 철학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풀어냈다. 50번째 대원불교학술총서이기도 하다.

책에는 인도·티베트·네팔 등지에서 뒤좀 린뽀체, 16대 까르마빠 등 고승들로부터 사사한 저자의 학문적 성과와 현장 경험이 녹아 있다. 티베트 불교의 역사와 전통, 철학은 물론, 발전과 변천 과정을 단순히 연대기 순으로 서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정치·종교적 맥락 속에서 비판적으로 짚어낸다. 승원 문헌 속 고차원적 교학부터 토착 신령과의 조화, 정화 의례, 점복, 호법신 숭배, 장례 및 뽀와(의식의 전이) 의례까지 폭넓게 다룬다. 이를 통해 '세속의 유지'와 '세속의 초월'이라는 두 근본 목적이 상호의존하며 티베트 문명을 지탱해 온 구조를 입체적으로 조명한다.

책은 8장에 걸쳐 티베트 불교의 기원부터 현대 서구 사회로의 전파까지 역사와 사상, 문화 전반을 치밀하게 아우른다. 7~9세기 티베트 제국 시기 불교의 유입과 뵌교·닝마빠의 형성, 10세기 후반 '후기 전법' 운동 이후 주요 학파의 전개, 겔룩빠 창시와 달라이 라마 체제의 확립 등 다원적 종교 지형을 추적한다.

아울러 보살도의 윤리적 실천, 아띠샤의 〈보리도등론〉에 기반한 근기별 수행, '로종' 및 '똥렌' 호흡 명상을 소개하고, 관세음보살 신앙과 육자진언, 승원 교육의 5대 문헌 및 4대 학파 체계를 정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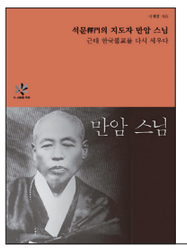
이어 탄트라(밀교)의 본질과 밀라레파의 수련 과정은 물론, 죽음과 환생 사이의 중간 상태인 '바르도' 관념과 〈티벳 사자의 서〉, 1959년 제14대 달라이 라마의 인도 망명 이후 서구 확산과 현대 과학과의 학술적 대화까지 담아냈다.

책 말미에는 참고문헌과 추가 읽기 자료를 수록해 학문적 완성도를 더했다. 티베트 불교를 향한 미화나 비판적 시각에서 벗어나, 학계의 연구 성과를 충실히 반영한 입문서를 찾는 연구자에게 추천할 만한 책이다.

배희정 기자

'다면불' 만암 스님을 그리다

〈多面佛〉



석문의 지도자 만암 스님
이재형 지음
동국대학교 출판문화원
1만5000원

조계종 초대 종정 만암 대종사
수행자·지사·교육자 면모 조망

일생 '이뭣고' 화두에 매진하며 백양사를 대가람으로 일으킨 수행자이자 일제 침략에 맞서 민족문화를 지켜내려 애쓴 지사,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불사에 매진한 교육자.

조계종 초대 종정을 지낸 만암 스님의 '다면불(多面佛)' 같은 삶과 사상을 조망한 책이 출간됐다. 〈석문의 지도자 만암 스님〉은 이재형 법보신문 대표가 사료를 바탕으로 만암 스님의 생애와 활동을 복원하며 근대 한국불교의 굵직한 장면들을 새롭게 들여다보는 책이다.

만암 종헌(1876~1957) 대종사는 1886년 아홉 살에 백양사로 출가했다. 23세 때 백양사 운문암에서 환응 스님에게서 배워 강맥을 이었고, 39세에 물외암에서 정진해 깨달음을 증득한 후 평생 수행과 교육에 매진했다.

'인재 불사가 곧 항일'이라는 믿음으로 1909년 근대식 학교인 광성의숙을 세웠고, 1930년에는 동국대학교의 전신인 불교전수학교를 중앙불교전문학교로 승격시켜 초대 교장을 지냈다. 해방 후에는 정광학원을 설립해 초대 이사장을 맡기도 했다.

또 1917년부터 10년간 중창불사를 이끌어 폐허나 다름없던 백양사를 호남 굴지의 대가람으로 일으켜 세웠고, 1948년 백양사에 고불총림을 결성했다.

1954년 조계종 제1대 종정에 오른 후에는 종조를 태고 보우 국사에서 보조 지눌 국사로 바꾸는 문제가 불거지자 "종조를 바꾸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이는 환부역조(換父易祖)"라고 비판하며 자리를 내던지고 백양사로 돌아왔다.



조계종 초대 종정이자 근대 한국 불교계의 원력보살인 만암 스님.
현대불교 자료사진

책은 스님의 출생에서부터 1957년 세수 80세, 법랍 70년으로 입적할 때까지의 삶을 좇는다. 기존 학계 연구 성과를 최대한 반영하고 사료를 일일이 대조해 스님의 생애를 고증했다. 특히 그간 이름만 전해오던 은사 취운 도진(1858~1922) 스님의 실체를 처음으로 복원한 점이 눈길을 끈다. 저자는 만암 스님에게 은사 취운 스님이 '지혜가 깊고 덕이 높은 고불(古佛)'이었고, 훗날 결성한 고불총림의 이름도 여기서 연원했음을 보여준다.

저자가 가장 주목한 부분은 만암 스님의 평화적이고 자주적인 정화 사상이다. 저자는 해방 후 만암 스님이 정화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먼저 제기하면서도 국가권력에 의존한 강제적 방식에는 반대했다고 설명한다. 스님이 생각한 정화는 응징이나 축출보다 '회복'에 가까웠다.

1954년 종헌 개정을 통해 '조계종'이라는 종명을 회복하고 도의국사를 종조로 명문화한 것도 그 연장선에 있다. 그러나 종조 문제를 둘러싼 갈등 속에서 스님은 결국 종정에서 물러났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남긴 말은 분열을 향한 비난이 아니라 '화쟁(和諍)의 문호'와 '화동(和同)의 길'이었다.

저자는 자립을 위해 노동하고, 미래를 위해 교육하며, 불교의 회복을 위해 개혁하되 분열을 경계했던 만암 스님을 통해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한순간도 어긋나지 않은" 수행자의 표상을 보여준다.

여수령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韓國佛教太古宗

宗正 雲耕
宗正禮敬室長 東虛

僧正院長 錦龍
首席副議長 靑峰
次席副議長 慧雲
僧正 智山,雲岩,知足,智巖,修庵,雪雲,普經,南坡,三學,法蓮,圓峰,守敏,守悅,宗演,知足,慧雲,大隱

元老會議 議長 虎溟
首席副議長 智玄
次席副議長 性悟
議員 錦明,雪峯,東佑,雲山,瑞峰,會梵,一雲,道光,祥明,雪山,觀正,法京,碧山,月峰,慧周,無德,古潭

中央宗會 議長 法輪
首席副議長 圓日
次席副議長 慧祐

護法院長 九山
副院長 幻明
委員 晩愚,智行,月照,海雲,一住,圓悟

初審院長 六和
副院長 杲峰
委員 哲悟,曉門,晩松,峻凡,眞空

中央選擧管理委員長 正雲
副委員長 智滿
委員 法一,智勤

總務院長 常眞
行政副院長 道惺
財經副院長 永範
總務部長 正眼
教務部長
財經部長 曉能
司書室長 道輝
文化部長 月陀
社會部長
弘報部長 法眞
糾正部長 眞華
比丘尼部長 現潭
校任·傳法師部長

教育院長 才弘
副院長 智觀
布教院長 能解
考試委員長 休完
法規委員長 智空
社會福祉院長
佛教文藝院長 松月
太古文化遺産傳乘事業團長 智虛

東邦佛教大學學長 法潭
教學處長 哲悟
韓國佛教新聞社長

全國比丘尼會長 玄仲
全國校任傳法師會長
全國信徒會長 圓覺
靑年會長 李正勳

종도일동

한국불교 전통문화전승관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1길 31(사간동) 전화 02) 739-3450, 팩스 02) 739-3470